

- ✓ 최신 시장 동향 분석
- ✓ 70 페어 이상의 선물 거래 제공
- ✓ 7×24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BTCC 거래소

최고의 거래량 세계 최저 수수료

지금 가입하기

- ✓ 10000U의 모의거래 가상금
- ✓ 10~150배의 유연한 레버리지 제공
- ✓ 원화 입금 지원

[PDF Database Document] - BTCC Cryptocurrency Exchange

원문:

<https://www.btcc.com/ko-KR/markets/Huma Finance>

휴마 파이낸스(HUMA)에 대하여

휴마 파이낸스(Huma Finance)는 사용자의 디파이 경험을 개선하고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과 유동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페이파이(Payment Financing, PayFi) 프로젝트로 최근 [바이낸스](#) 알파 플랫폼에 최초로 상장 발표로 인해 시장의 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휴마 파이낸스(Huma Finance)란?

[휴마 파이낸스\(Huma Finance\)](#)는 실제 소득과 미수금을 블록체인에 통합하도록 설계된 탈중앙화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는 암호화폐 자산이 아닌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신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개인, 중소기업 및 신흥 시장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휴마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반 담보: 차용자는 급여, 송장 또는 송금과 같은 미래 지급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체인 인수: 이 프로토콜은 발행자가 온체인 및 오프체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용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과 자동화를 보장합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대출 계약 및 결제 흐름이 스마트 계약으로 인코딩되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TRADE_PLUGIN]HUMAUSD, HUMAUSD[TRADE_PLUGIN]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기](#)

휴마 파이낸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휴마 파이낸스의 PayFi 모델은 신용 발행자, 미수금 발행자, 유동성 공급자, 차용자라는 네 가지 주요 참여자로 구성된 모듈식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신용 발행자는 신용도를 평가하고 자금을 제공합니다. 채권 발행자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사용되는 온체인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자금을 공급하고, 차용자는 그 대가로 신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인수, 지급 및 상황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상호 작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중개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은행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HUMA 코인

HUMA는 휴마 생태계의 기본 유틸리티 및 거버넌스 토큰으로, 프로토콜 매개변수와 가치 분배 메커니즘의 최적화에 대한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UMA의 총 공급량은 100억 개이며, 상장 초기 유통량은 약 17억3333만 개로 전체의 17.33%입니다. 바이낸스 런치풀 외에도 △상장 후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5000만 개 △상장 후 3개월이 지난 뒤 별도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4000만 개의 HUMA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HUMA 코인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에어드롭: 5%
- LP & 생태계 인센티브: 31% (분기별 디플레이션 발행)
- CEX 상장 및 마케팅: 7%
- 마켓 메이커 & 온체인 유동성: 4%
- 프리세일: 2%
- 투자자: 20.6% (12개월 락업 + 3년 분기별 분배)
- 팀 & 고문: 19.3% (동일 조건)
- 프로토콜 재무부: 11.1% (1% 즉시, 8개 분기 분배)

[TRADE_PLUGIN]HUMAUSDT,HUMAUSDT[/TRADE_PLUGIN]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기](#)

휴마 코인 미래전망

휴마 파이낸스는 혁신적인 PayFi 네트워크를 통해 지불 금융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휴마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현명하게 연결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금융 솔루션의 길을 열어갑니다.

PayFi 열풍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휴마는 이를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 환경을 재편하며, 기업과 개인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열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백서](#)

 [공식 홈페이지](#)